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지선*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어학원에서 머물며 수업을 들었다. 어학원 규모는 크지 않았고 1층에 식당, 수영장 시설이 있다. 선생님들, 식당에서 일 하시는 분들, 청소해주시는 분들 등 모두 너무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좋았다~.
수업	첫 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분반되어 한 달간 수업을 듣는다.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1시간을 제외하고 50분씩 진행되었다. 1:1수업 3시간, 그룹수업 5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과제는 선생님이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간단한 과제로 하루에 한 두 개 정도 내주신다.
Activity	-수빅투어 첫 주에는 임의로 정해진 조로 수빅투어를 했다. 선생님들의 안내로 수빅 곳곳과 올롱가포를 구경할 수 있었다.  -안바야코브 토요일에 안바야코브 리조트에 놀러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물놀이도 즐겼다. 수영장도 있고 해변도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물놀이를 할 수 있었고, 넓고 경치가 예뻐서 정말 행복했다!!!^^ 수영복을 챙겨야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챙기는 게 좋고 추가비용은 밥값만 준비하면 충분했다.

	<p>-고아원 방문</p> <p>방문 전에 아이들을 후원할 돈을 걷었고 금요일에 다같이 차를 타고 고아원에 방문했다. 처음에는 모여서 소개를 한 후 나뉘어져 고아원 내부를 둘러보았다. 밖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살고있었고 다들 성격이 밝아서 잘 따라주었다. 아이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동안 정이 들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p> <p>-요트</p> <p>숙소에서 30분~1시간정도 차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요트를 탔다. 중간에 멈춰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을 챙기면 좋고, 액티비티를 할 때 마다 날씨도 좋아서 더더 재밌었다! ^,^</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같았다. 너무 심하게 덥지도 않고 나에겐 딱 좋은 날씨였다. 비도 정말 가끔 내렸고, 내려도 금방 그쳤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외출 할 때는 우산을 챙기는 것도 좋다.
안전	항상 가드분들이 24시간 숙소를 지켜주셨고 건물에도 경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다. 하지만 올롱가포 쪽은 무서웠다,, 여자 혼자 다니기엔 위험할 것 같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에는 도마뱀이랑 바퀴벌레, 개미가 있었다. 특히 우리방 앞에는 개미집이랑 이어진 길이 있었고 방 화장실이나 바닥에서 가끔씩 바퀴벌레가 나오기도 했다. 도마뱀은 천장을 기어다녀서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엔 조금씩 적응되어서 귀여워보였다..^ ^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 외부식당 (O) 기타( ) 아침은 처음 도착한 후 며칠 빠곤 안먹었고 점심은 항상 식당에서 먹었다. 항상 한식이 나왔고 맛있었다. 거의 매일 밖에 나갔기 때문에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밖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다!
교통	FB를 타고 돌아다녔고 돌아올 때도 거의 FB나 택시를 탔다. 택시가 FB보단 편하지만 더 위험하다고 느껴졌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가비용	50만원	
합계	1,235,4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로 챙겨야한다. 500달러를 챙겨갔는데 돈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남겨왔다. 400달러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100달러짜리로 모두 환전해 가는 것이 좋다. 물놀이를 할 일이 많으니 수영복을 챙기는 게 좋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 필리핀에 가기 전까진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다. 혼자 신청했고, 막상 가면 공부만 하겠지 생각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놀 곳도 많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하루 8시간 수업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웠다. 선생님들과의 친구 같은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다. 다들 편하고 장난스럽게 대해주셔서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었다. 특히 듣기와 단어수업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좋은 친구들, 오빠들, 언니들, 동생들을 만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배운 점도 많았다.

그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오기 전엔 한 달만 더 있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아쉬웠다ㅠ,ㅠ....

영어에 더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고, 선생님들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숙소 수영장에서 다같이 물놀이</p>	<p>올한즈비치</p>
	
<p>안바야코브 수영장</p>	<p>요트타러 갔을 때</p>
	
<p>수빅베이</p>	<p>마닐라</p>